

### 경찰청 문화재지킴이·단속반 인력확충 불구

# 비지정문화재 도난 되레 급증

◆연도별 문화재 도난 현황(1994년~2002년 7월) - 문화재청 자료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합계	회수합계
1994	0	0	13건 270점	4건 270점	13건 270점	4건 270점
1995	12건 10점	0	6건 696점	12건 18점	7건 679점	12건 18점
1996	2건 2점	22건 2점	14건 1,945점	12건 4점	16건 1,947점	32건 6점
1997	52건 99점	12건 11점	18건 950점	42건 7점	23건 1,049점	52건 19점
1998	9건 27점	32건 3점	26건 979점	32건 396점	37건 1,006점	62건 399점
1999	7건 27점	52건 23점	25건 118점	12건 18점	32건 145점	62건 24점
2000	62건 12점	22건 3점	22건 627점	52건 13점	282건 639점	72건 16점
2001	32건 4점	12건 1점	16건 248점	12건 18점	19건 252점	22건 2점
2002	7건 405점	0	62건 811점	0	13건 1,216점	0
계	402건 589점	142건 43점	148건 6,814점	202건 566점	186건 7,400점	342건 608점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올해 들어 급증해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2001년 7월)과 문화재청 사법단속반 인력 확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9월 24일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난당한 비지정문화재는 811점으로, 이는 지난 해 248점의 3배가 넘는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확대, 문화재 보수 공사 부실시공, 석조문화재 안전 문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문화재 도난 여전= 고흥길(한나라당) 의원과 조배숙(민주당) 의원 등은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난당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188건 7천403점에 달하며, 회수한 문화재는 34건 608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9년간 도난 당한 문화재 가운데 지정문화재는 40건 589점인데 비해 비지정문화재는 148건 6천814점에 달해 비지정문화재의 관리가 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01년 이후에도, 2001년에는 248점(16건)으로 전년도(25건 118점)에 비해 줄었으나 2002년에는 811점(62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고 의원 등은 "지난 해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는 국보 238호 소원화개철 등 3건(4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경상남도 민속자료 1호인 석마를 비롯해 7건(405점)으로 급증했다"며 문화재 도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액 턱없이 부족= 정동채(민주당) 의원은 "도난의 표적

이 되고 있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통도사와 해인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 금액이 5억~50억원 안팎이다"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이 금액으로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박물관은 30%, 관장지의 전시관은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매우 너무나

### 문화재청 국정감사... 작년 248점의 3배 성보박물관 지원·보존대책 등 따져

작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이 5억원 내외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박물관 건립비 50억~100억의 10%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고 거론했다.

○국보급 석마를 기우고 있다= 국보 20호인 불국사 다보탑, 국보 21호 석가탑, 국보 112호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이 06~10도 기웠다는 지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신영균(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과 경주시청이 지난 2000년 12월~2001년 9

월 이들 국보급 석탑에 대해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다보탑과 석가탑은 북북서 방향으로 각각 0.6도, 0.9도, 감은사터 서삼층석탑은 남동쪽으로 1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몇 년에 걸쳐 실시한 기울기 변화 점검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어 탑의 기울기가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 전문가들도 1도 기울기는 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다. 다만 이들 석탑이 조성 당시부터 기울어진 것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조문화재 부실 공사= 문화재 보수공사의 부실 시공 여부도 집중 거론 대

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 1백2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두 1백9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항목 가운데 불교 관련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4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문화재보수비는 올해보다 2백억원이 늘어난 1천7백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전통문화와 유적역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재 안내원을 배치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news.com

## 본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달부터

'현대불교'가 10월부터 47면 증언과 더불어 대대적인 지면혁신을 단행합니다. 다면 화되고 급변하는 첨단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뉴스 제공을 위해 28면으로 늘어난 지면은 A판 12면, B판 16면으로 색선택화 합니다. 또 시원한 사진 배치와 활개 걸러면도 중전의 4면에서 총 12면으로 확대했습니다.

### 지면 일대 혁신... A판 12면·B판 16면 색선택화 수행·책·생활정보 강화, 컬러 12개면으로 확대

이번 지면개편을 통해 현대불교는 품격 높은 정보, 예리하고 공정한 논평 등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파사현정'의 정신을 담아갈 것입니다. 송단과 시사, 불자회 소식, 불자들의 움직임이 추가 되는 색선 A는 현장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색선 B의 제작 기조는 '아름다운 삶, 수행하는 불자'입니다. 모든 지면을 참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수행'으로 화홍시킴을 것입니다.

정신 선정 지혜 라는 불교 궁극의 실천행은 주제 모듬으로 그려 보아겠습니다.

#### 불교미술품의美 (B-17면)

한국 문화의 핵을 이루는 불교문화는 유물 문화에 있어서도 70%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난을 통해서 불교의 조형 세계에 녹아든 불교 사상을 찾아보면, 그것을 낳은 당대의 현실과 불교가 어떤 형태의 만남을 이루었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해명해 보겠습니다.

#### 새 지면 새 기획

##### '우리 불자회의' (A-7면)

최근 직장직업 불자회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신형 기사 불교를 이끌어 가는 직장 불자회의 활동, 단체장 동정 등을 보겠습니다. 각 단체의 회원이 쓰는 불자회의 목적과 자랑이 담긴 '우리 불자회'는 가 신선했습니다.

##### 책세상 (B-18·19면)

##### 지방 (A-11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불교계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면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지방의 다양한 소식을 과감하게 발굴, 중점 소개합니다.

인터넷이 정보 전달의 총아로 자리 잡을수록 '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성 정보 제공이나 인류의 일상에 대한 성찰은 책이라는 형태가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여 출판 소식을 2개 면으로 늘렸습니다. 불서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문을 열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전문가의 심도 있는 서평을 상설화하여 불교 출판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불교정부 뉴스 (B-20면)

##### 아름다운 삶·사람 (B-13면)

현대불교가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는 순일무잡한 삶의 경지를 엿보게 합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위, 종교를 초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독자 여러분들과 공감하면서 참된 불자로 살아가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차차차 박사가 쓰는 불교이야기입니다.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생활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한글날 앞면 누구나 쉽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주제가 있는 수행연장 (B-14면)

불교는 다경전 다방면의 종교입니다. 나이와 신분, 학식 따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이 펼쳐져 있는 참이아름답고 불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제가 있는 수행연장'에서는 불교의 여러 수행 방편을 사진적 개념 소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성 건강 노인 복지 알뜰 가게 등 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불자다운 삶의 무늬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내용들로 독자 여러분의 흥미로운 과충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 바라밀연장 (B-15면)

실천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상구보리 와 '하회중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바라밀'이 따르지 않는다면 바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보살행의 현장을 찾아, '보시' 지계 인욕

남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남의 불행에서 고혼의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동지의 입장에서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가 남지실 씨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해결해 나갈 길을 찾아봅니다.

##### IT (B-27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 따라잡기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전문 지면이 격주로 선보입니다. 전국 사찰의 디지털 불사를 심층 소개하고 불교관련 콘텐츠 소개, IT 업계 CEO 이야기 등을 알차게 다룹니다.

### 정부 내년 문화예산 편성

내년도 정부의 문화 예산 중 불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4억여원 늘어난 1백87억5천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문화 예산을 1조2천8백15억원으로 편성, 9월25일 발표했다. 이 규모는 문화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로, 올해 1조2천1백15억보다 7백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문화 예산은 일반회계 정부예산

## 불교관련 예산 187억원

### 신규사업 '전통사찰 안내 시스템 구축' 포함

1백11조7천7백원의 1.15%로, 2000년 이후 4년째 문화예산이 정부예산의 1%를 넘어섰다.

이번에 확정된 불교 관련 예산은 △전

통사찰 보존 및 정비사업에 51억2천만원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4억원 △내년 말 완공예정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1백2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비는 올해 70억

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 1백2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두 1백9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항목 가운데 불교 관련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4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문화재보수비는 올해보다 2백억원이 늘어난 1천7백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전통문화와 유적역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재 안내원을 배치하는데 3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news.com

### 불자의 생각

#### 금주의 주제: 후원금

1. 불자님은 복지단체나 불교계 목적사업 등에 대해 연간 및 회정도 후원금을 내십니까?

①5회이상 ②3회이상 ③2회 ④1회 ⑤내지않는다

2. 후원금을 내신다면 그 액수는?

①10만원 이상 ②5만원 이상 ③3만원 이상 ④2만원 이상 ⑤1만원 이하

설문 참여: 10월 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0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법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नाव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원만성취 나라번영 불교중흥 기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 天馬行地 塵沙開

천마가 힘차게 나아가니  
길이 환히 열리도다

### 불교문화대제전

#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교정보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2002년 5월 제7회 작품전을 거행한데 이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원만성취기원 대길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의 원만성취와 나라번영을 기원하는 불교문화제전을 병행하며 무려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10월 13일(일) 오후 6시(10월11~10월13일까지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 KBS 부산방송국 갤러리(수영구 남천동)

기념불교문화강연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교수님의 기념 강연

기념품증정 : 불교경전, 호신물 목걸이등 기념품 증정 •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玉龍子대길상도의장은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국제적인 인공과 함께 대길상도가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부산 금강불교 아카데미 총동문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TEL: 621-8548~9, 611-8548~9 FAX: 625-2741